

여행은 살아 있는 공부

마성스님,유엔 웨삭데이 참관기(1)

- 2006년 5월 7일 ~ 10일, 태국 방콕 -

2006년 05월 17일 (수) 11:40:52

마성

[매년 음력 4월 15일은 국제연합(UN)에서 지정한 '유엔 웨삭데이'입니다. 올해는 유엔 웨삭데이와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 축하를 위한 제 3차 국제불교회회가 200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스님이 참석해 세계불교계의 흐름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마성스님의 유엔웨삭데이 참관기>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불교도들은 음력 4월 15일을 '웨삭(Vesak)'이라고 부른다. 웨삭은 빠리어 위사카(visākhā)에서 유래된 것이다. 빠리어 위사카(visākhā)가 웨사카(vesākhā)로 변했고, 지금의 '웨삭'이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위사카(viśākya)라고 하는데, 인도 달력으로는 2월에 해당된다. 남방불교의 전통에 의하면 붓다는 위사카월(月)의 보름날에 탄생·성도·열반하였다고 한다. 즉 붓다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탄생·성도·열반이라는 세 가지 사건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12월 13일 제 5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음력 4월 15일을 '유엔 웨삭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웨삭데이는 세계의 성스러운 날(Holy day, 聖日)이 되었다. 올해 유엔 웨삭데이와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 축하를 위한 제 3차 국제불교회회가 200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의 붓다몬톤(Buddhamonthon) 강당과 태국 방콕의 유엔 회의장에서 세계 45개국의 불교지도자 1천 2백 명과 태국의 불교지도자와 신도 3천명, 합계 약 4천 2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제 3차 국제불교회회는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 세계대회보다도 큰 규모로 개최되었다. 행사 규모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알찬 행사였다. 여기서 전체 행사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행사 하루 전 : 2006년 5월 6일 토요일

5월 5일(음력 4월 8일) 자정 무렵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모두 끝마치고 잠시 눈을 붙였다. 다음 날인 5월 6일 새벽 4시 예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했다. 오전 5시 30분경 여행용 가방을 챙겨 사찰을 나섰다. 오전 7시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그때 이미 다른 일행 15명도 모두 집결해 있었다. 우리는 출국수속을 완료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오전 9시 태국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 일행은 이번 '유엔 웨삭데이' 행사를 주관하는 태국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의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부산에 소재한 '동국불교전법대학'은 이 대학과 학술결연을 맺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사장 허성현 박사, 학장 이도성 스님(부산 태종사), 알록 로이(부산 외국어대 힌디어과), 김홍구(부산 외국어대 태국어과),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등 다섯 명은 이 대학의 인솔 교수 신분으로 나머지는 학생신분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제일 먼저 태국에서 발행된 영자 신문 The Nation 을 펼쳤다. 이 신문의 5월 5일자 1면에 태국 국왕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국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이 어제 개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태국 방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였다.



그 기사 바로 밑에 “삼장을 왕에게 바치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1989년부터 태국의 마히돌(Mahidol) 대학교에서 전산화하기 시작한 팔리삼장의 CD-ROM을 국왕 즉위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5월 9일 왕에게 바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 CD-ROM에는 로마(Roman), 타이(Thai), 크메르(Khmer), 라오(Lao), 버마(Burmese), 란나(Ranna), 싱할라(Sinhalese), 데와나가리(Devanagari) 등 8개국의 문자로 기록된 팔리삼장의 정전(正典)과 텍스트 194권을 담았다고 한다. 즉 태국의 삼장 45권과 다른 팔리삼장 45권, 주석서 57권, 팔리어로 씌어진 근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에 관한 책 27권, 그리고 태국에서 비구와 사미들의 교육용으로 쓰이는 20권의 책을 수록했다고 한다.



이 전산화 작업은 마히돌 대학교에서 마하마꾸뜨(Mahamakut) 대학교와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의 자문을 받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BUDSIR V CD-ROM을 내놓았다. 이 CD-ROM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 3차 국제불교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에게는 무료로 배포해 주었다.

태국행 비행기에서 나는 알록 로이(Alok Roy) 교수와 함께 앉게 되었다. 우리는 기내에서 약 5시간 동안 인도철학사 전반에 대해 서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로이 교수는 인도의 사성계급 제도와 인도사상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지금까지 나는 서양의 학자들이 쓴 책을 통해 인도의 철학과 종교를 이해해 왔다. 그런데 외국인이 보는 관점과 인도인이 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로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쓴 책에는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서양 학자들이 쓴 인도역사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태국에 머무는 6일 동안 우리는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알록 로이 교수를 통해 인도사상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다. 그때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그의 설명을 받아 적었다. 이것은 이번 해외여행을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짧은 기간의 태국여행은 아주 유익한 것이었다.

오후 2시 20분(태국 현지시간 12시 20분)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제 3차 국제불교회의 및 유엔 웨삭데이 행사 준비 요원이 입국 심사장까지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와주었다. 간단하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열대 지방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비로소 태국에 도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태국 공항에서 숙소인 프린스 팰리스 호텔(Prince Palace Hotel)로 이동했다.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방 배정을 받았다. 방을 배정받기까지 호텔 로비에서 장시간 기다렸다. 그때 마침 방글라데시에서 온 스님들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방글라데시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과 학승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방글라데시의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방글라데시의 불교와 불교유적에 대한 궁지가 대단했다.



사실 인도불교가 멸망할 무렵 최후까지 버틴 것은 날란다(Nālandā), 비크라마실라(Vikramaśīla), 오단따뿌리(Odantapuri), 바즈라사나(Vajrāsana, 金剛寶座 즉 佛陀伽倻) 대가람이었다. 그런데 나란다 유적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현재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크라마실라 사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방글라데시는 회교국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방글라데시의 다까(Dhaka) 대학교의 수꼬말 바루아(Suomal Barua) 교수를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크라마실라 대가람이 방글라데시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교대표단의 스님들에게 비크라마실라 사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침 일행 중에는 방글라데시 치따공(Chittagong)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지나보디(Jinabodhi) 비구가 있었는데, 그가

비크라마실라 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다음 기회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비크라마실라 사원을 비롯한 방글라데시에 남아 있는 불교유적을 꼭 답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답사여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히라가와 아키라 박사가 쓴 '인도불교의 역사'(하권)에는 비크라마실라사는 서기 800 년경 팔라왕조 제 2 대 다르마팔라왕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절은 마가다의 북방, 갠지스 강의 남쪽 하안에 위치한 높다란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절의 유적지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도 후기 대승불교의 중심지였던 비크라마실라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것은 큰 행운이었다.

저녁에는 부산 외대 태국어과 김홍구 교수의 안내로 방콕 시내로 나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태국의 문화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었다. 김 교수는 태국의 현지인보다도 태국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태국정치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가이다. 이러한 전문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서 나는 무척 행복했다. ▣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29>

제 3 차 국제불교회의 개막

유엔 웨삭데이 참관기(2)

2006 년 5 월 7 일 ~ 10 일, 태국 방콕

2006 년 05 월 22 일 (월) 14:11:55

마성

첫째 날 : 2006 년 5 월 7 일 일요일

오전 8 시경 세계 각국의 불교지도자들과 귀빈들이 붓다몬톤(Buddhamonthon) 대강당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한국에서 온 다른 스님들과 함께 같은 버스로 이동하여 행사장에 입장했다. 나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 각국 불교지도자들을 만나 인사를 교환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광경은 국제회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오전 8시 45분경 태국불교계의 살아있는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솜땃 프라 붓다차리아(Somdet Phra Buddhacharya) 스님의 입장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솜땃 프라 붓다차리아 스님은 태국의 상가라자(Sangharāja) 즉, 승왕(僧王)으로 칭송된다. 그러나 이런 국제회의에서는 승왕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고 태국 상가의 '원로위원회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승왕이라고 칭한다. 행사준비위원회의 대표적인 스님들이 승왕을 영접했다. 승왕은 먼저 불단에 촛불을 밝히고 예배한 뒤, 단상에 마련된 특별한 좌석에 앉았다.



이때 태국 마하출라롱콘라자위다라야 대학교 총장이자 유엔 웨삭데이 국제기구위원회 의장인 프라 다르마꼬사잔(Phra

▲ 태국 마하출라롱콘라자위다라야 대학교 총장이자 유엔 웨삭데이 국제기구위원회 의장인 프라 다르마꼬사잔(Phra Dharmakosajarn)

Dharmakosajarn) 스님이 승왕께 행사내용을 보고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식순의 경과보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경과보고를 그 모임의 최고 원로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고 형식을 통해 대장로의 권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도 본받아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경과보고가 끝나자, 승왕은 단상으로 자리를 옮겨 약 15분간 연설했다. 승왕의 말씀은 조리 정연했으며,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다. 대화장의 모든 연설은 세계 각국어로 통역되었고,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대강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서 행사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진행과정은 태국의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메스메디어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행사장 뒤편에는 각국의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었다.

승왕은 연설을 마치고 단하로 내려와 각국의 대표적인 불교지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회의장을 떠났다. 승왕이 떠난 뒤, 이번 국제불교회회의 최고 의장인 프라 다르마꼬사잔 스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의 총장인 그는 환영사에서 '부처님도 하나, 불교도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환영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번 제 3 차 국제불교회회를 통해 세계불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태국의 붓다몬톤은 세계불교의 센터가 될 것이다. 유엔에서 웨삭데이를 제정한 것은 상좌불교, 대승불교, 금강승불교가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불교 전통은 다르지만 같은 날 웨삭 축제를 함께 봉행하기를 바란다. 불교는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불교도들이 힘을 모아 세 가지 사업을 전개하자. 첫째는 불교학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로 교류하자. 둘째는 현재 남아 있는 불교유적을 보호하고, 불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 셋째는 물질적 성장과 함께 타락해 가고 있는 정신문화를 우리 불교도들이 지켜 나가자. 이번 회의 기간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제일 먼저 스리랑카 시암 니까야 말왓따 지부의 수망갈라(Sumangala) 대승정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중국, 캄보디아, 일본 대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스리랑카 시암 니까야 아스기리아 지부의 붓다락키따(Buddharakkhita) 대승정,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유럽, 브라질, 캄보디아 대표의 메시지가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짧은 시간에 각국 대표들의 메시지를 다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준비해 온 원고를 끝까지 읽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중간에 벨을 세 번까지 울렸는데도 계속 연설하는 대표도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 나중에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거의 대부분 의례적인 인사말에서부터 유엔 웨삭데이의 중요성과 의의 등을 설명하는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공양 시간이었다.

대강당 옆에 마련된 식당에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귀빈식당에서 점심공양을 했다. 점심공양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1시까지 다시 회의장에 입장했다. 곧바로 장내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태국의 공주가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1시 30분경 먼저 수왓 님따빠롬(Suwat Liptapanlop) 태국 부총리가 회의장에 도착했다. 이어서 시리완나와리 나라라따나(Sirivannavari Nariratana) 공주가 붓다몬톤에 도착했다. 공주가 대강당에 도착하자 승려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님께 공경의 예를 표했다. 태국에서 왕실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로얄 패밀리에 대한 의전은 매우 엄격했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불교행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공주가 대강당에 도착하여 퇴장할 때까지 약 30분가량은 아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 모든 의전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왕실의 전용 사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촬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주의 모습은 한 카드도 찍지 못했다.

공주는 대강당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단상에 마련된 불단에 촛불을 켜고 예배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그러자 부총리가 앞에서 총장이 승왕에게 보고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공주에게 보고했다.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공주는 유엔 웨식데이 국제불교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그리고 공주는 원로 스님들에게 차례대로 불상을 공양했다. 그러자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은 공주께 선물을 증정했다. 공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각국 불교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존경의 예를 표하고 퇴장했다.

오후 3시 수완 님따빠롬 부총리의 간단한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태국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의 부총장들과 교직원 스님들의 독경이 있었다. 독경이 끝난 다음 다시 세계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오후 5시까지 오스트리아, 대만, 방글라데시, 네팔, 세계불교교우의회 대표 등의 연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는 오후 5시까지 각국 대표들의 연설은 다 끝나지 않았다. 아마 내일 다시 각국 대표들의 연설은 계속될 것이다. 그야말로 말씀의 성찬 자리였다.



오후 5시 이번 제 3 차 국제불교회의 첫째 날 행사가 모두 끝났다. 참석자 모두 대강당 밖으로 나와 기념 촬영을 실시했다. 기념 촬영을 하는데 약 30 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올 때 우리 일행들의 모습을 보니 거의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공부 한 소감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루 동안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한바탕 웃었다.

국제회의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통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의 한국어 통역을 누가 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사 내용 중 절반 정도밖에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았다. 특히 불교 고유의 빨리어 용어나 직책 등을 잘못 통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좌불교(Theravāda)를 소승불교(Hīnayāna)라고 통역하고 있었다. 만일 거꾸로 테라와다(상좌불교)를 히나야나(소승불교)라고 영어로 통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 상상해 보았다. 불교의 국제회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가 바로 '히나야나'라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오늘 통역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적인 감각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야 할 것이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00>

유엔 웨삭데이 기념식

유엔 웨삭데이 참관기(3)

- 2006년 5월 7일 ~ 10일, 태국 방콕 -

2006년 06월 07일 (수) 11:07:37

마성

둘째 날 : 2006년 5월 8일 월요일

오전 8시경 각국의 불교대표자들이 태국의 방콕 시내에 위치한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유엔본부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 검색을 거친다. 나는 지난 2002년 6월 이곳에서 개최된 종교지도자세계회의(The World Council of Religious Leaders)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았다.



▲ 유엔 회의장에서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 중간에 한국의 스님들이 많이 앉아 있다.

오전 8시 30분경 각국 대표자들의 입장이 완료되었다. 식전 행사로 불교의례가 실시되었다. 먼저 중국의 스님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독경을 했다. 일본에서는 두 그룹이 참여하였는데, 나중에 나온 팀은 양복에

낙자를 두른 일련정종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무묘법연화경'의 경제(經題)를 봉창하였다. 이어서 베트남 스님들이 나와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경발음과 거의 비슷했다.

염불과 명상의 시간이 끝나고, 수왓 님따뻬롬(Suwat Liptapanlop) 태국 부총리와 국제연합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김학수 사무총장,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셸던 사에프러(Sheldon Shaeffer) 방콕 사무소장, 유엔 웨삭데이 국제기구위원회 의장 프라 다르마꼬사잔(Phra Dharmakosajarn) 스님 등의 입장과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엔 웨삭데이 국제기구위원회 의장 겸 태국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 총장인 프라 다르마꼬사잔 스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즉석으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 웨삭데이 행사는 유엔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학수 유엔에스캡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그는 "불교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종교입니다. 유엔의 심벌마크는 세계지도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버 가지를 양옆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붓다는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엔 예산의 70% 이상이 세계평화유지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라는 요지의 환영사를 했다. 그는 현재 세계불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님 중 한 명이다.

두 번째로 김학수 유엔에스캡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는 실제로 오늘 유엔 웨삭데이 행사의 주최자이자 최고 귀빈이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이 행사에 불참한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대신 낭독했다. 그리고 코이치로 마츠우라(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총재의 메시지를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장이 대독했다. 이어서 태국 부총리의 연설이 있었다. 유엔 웨삭데이 행사를 주관하는 귀빈들의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단하로 내려와 각국 불교대표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교환하고 퇴장했다.



▲ 태국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 총장 프라 다르마꼬사잔 스님

이어서 프라 라즈 수메다잔(Phra Raj Sumedhajarn) 비구의 "세계평화에 대한 불교도의 기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서양인으로서 태국의 승단에 출가하여 17년간 수행한 뒤 현재 영국에서 불교포교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스님이다. 그의 연설은 매우 힘이 있었으며, 자신의 수행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그의 기조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온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환상을 내보내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잡고 있는 마음을 놓으면 지혜, 진실이 오게 된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탐욕을 지속하면 파멸로 간다. 탐욕은 충족될 수 없다. 탐욕은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므로 탐욕을 놓아버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영국의 비불교도들이 사찰을 많이 방문한다. 그들은 사찰에 와서 공양물을 올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영국에서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다음은 바와 자인(Bawa Jain) 종교지도자세계회의(WCRL)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을 끝으로 오전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점심 식사는 유엔본부 건물의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었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번잡스러웠다. 점심 식사 후에는 유엔의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교적 전략에 대한 조망

오후 1시부터 다시 유엔본부의 대회의장에서 행사가 계속되었다. 먼저 각국 불교지도자의 연설이 이어졌다. 미국 LA 불교협회 회장의 연설과 베트남불교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그런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는 지정 패널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교적 전략에 대한 조망”이라는 주제로 파리 유네스코 고문인 담마라따나(T. Dhammaratana)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김학수 UNESCAP 사무총장

패널은 미국 서부대학교 이화(Yi Fa) 비구니, 스리랑카 페레데니야 대학교의 프레마시리(P.D. Premasiri) 교수, 태국 WFBU 회장 아누루트 봉반이지(Anurut Vongvanij), 세계연방을 위한 일본불교회의 회장인 카쿠한 에나미(Kakuhan Enami) 스님, 영국 옥스퍼드대 불교학 연구 센터 소장인 조프레이 뱌포드(Geoffrey Bamford) 교수, 같은 연구소 캄마이 담마사미(Khammai Dhammasami) 박사 스님, 싱가포르의 밍이(Ming Yi, 明義) 박사 스님 등 7명이 참가했다.

첫 번째 패널로 참가한 대만 출신 이와 비구니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즉 “9·11 테러 사건에 대한 불교계의 자성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 젊은이들은 종교를 혐오하고 있으며, 종교가 세계평화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를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중에서 이와 비구니가 가장 돋보였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였고, 논리도 정연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와 비구니의 뛰어난 학식에 감탄했다. 그녀는 대만 출신의 비구니로서 불교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았다.

두 번째 패널로 참가한 영국의 조프레이 뱌포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 좋은 경험이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사고에 갇히게 되면 분쟁·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된다. 현대인들은 물질만이 실존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실체 없음을 강조한다. 불교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패널로 참가한 일본의 카쿠한 에나미 스님은 일본불교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일본어로 자신의 주제문을 발표했다.

네 번째 패널로 참가한 캄마이 담마사미 스님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그는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 “90년 이상 전통적 교육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과과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불법은 변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변한다.”라는 말로 불교교육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그는 승가가 자주 모여 논의하면 승가가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승단에서 하나의 전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 즉 상좌부·대승불교·금강승을 동시에 공부하여 상호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불교국가에서도 20년 이상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 베트남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는 모습

다섯 번째 패널로 참가한 스리랑카의 프레마시리 교수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첫째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하는 방법, 즉 방향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다.”고 전제하고, “모든 갈등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갈등의 시작은 자기위주의 사고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둘째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 어떻게 이끄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다. 지도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갈등도 사라지고 평화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패널로 참가한 태국의 아누루트 봉반이지 회장은 불교단체에서의 역할 등에 관해 언급했다.

일곱 번째 패널로 참가한 싱가포르의 밍이 스님은 “사회복지와 화합, 그리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전에 먼저 불교계 내부의 화합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그는 “불교도들은 누구나 자비에 관한 이론들을 잘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준다. 병원이나 고아원 등 실제적으로 물질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불법을 여는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교신자들 중에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지? 같은 종파 내에서도 하나로 화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불교계 내부의 갈등도 많이 표출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불법은 변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변한다.”

이와 같이 지정 패널의 토론회는 아주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패널의 발표가 끝난 뒤, 패널들 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먼저 담마사미 스님과 프레마시리 교수 간에 논쟁이 있었다. 담마사미 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가난의 극복 없이는 세계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레마시리 교수는 가난이 모든 분쟁과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가난만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다. 불교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않는다. 다른 내적 원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유엔 회의장에서 연설 내용을 메모하고 있는 마성스님

그러자 객석에 있던 스리랑카불교우의회 회장이라는 재가 불자가 프레마시리 교수에게 물었다. 세계의 평화는 리더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권력의 힘과 법만으로 세계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본다. 도덕과 법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자 담마사미 스님은 세계분쟁과 갈등에는 경제적 원인이 있다. 경제적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폭력과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보충 설명했다.

패널들과의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많은 질문자들이 발언권을 신청했다. 사회자가 객석에서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 특히 대만 출신 이와 비구니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다. 어떤 캄보디아 대표는 이와 비구니에게 9·11 사태와 불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불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게 불교의 평화사상을 전할 수 있는가? 불교는 정말 평화를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와 비구니는 “9·11 사태는 전 인류의 비극이다. 우리 불교도들도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종교가 제국주의에 이용되거나, 정복의 수단으로 이용된 적이 많이 있었다. 하버드대에서는 협상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런데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불교는 언제나 외부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유엔본부 1층 로비에 임시로 마련된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객석에서 어떤 사람이 프레마시리 교수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물었다. 프레마시리 교수는 불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구가 불교경전에 나와 있다고 그는 답변했다.

이 외에도 토론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들도 많이 쏟아졌다. 사회자가 중도에 요지만 간단히 말하라고 몇 번 당부하였으나, 끝까지 개인적인 사건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인 담마라파나 박사는 토론을

아주 잘 진행하였다.

한국 비구니스님, 태국여성 출가자 비구니계 설 하도록 요청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여 조크를 받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제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통해 유엔의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발언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온갖 해프닝을 벌이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였다.

한편 토론이 끝나갈 무렵, 한국의 비구니 스님이 태국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비구니계를 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질문을 했다. 사회자인 담마라따나 박사는 이 주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내일 본회의에 별도의 의제로 상정하라고 잘라 말하고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오후 3 시경 전체 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이것으로 오늘 유엔본부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났다. 오후 7 시부터는 붓다몬톤 대강당에서 태국 국왕 즉위 60 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공연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탄 차량의 기사가 착각하여 행사장인 붓다몬톤이 아닌 호텔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97>